

6-7-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로마서 8:29-30  
말씀제목: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롬 8:17-18,23)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은  
몸의 구속의 날이며, 이 날은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입는 휴거의 날인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롬 8:19-21)

그야말로 엄청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의 날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함께 썩음의  
종노릇하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이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기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 33-39)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날이 다가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눅 21:25-32)

아멘! 할렐루야!